



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신앙 기반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의 뉴욕주 최초 이프타르 만찬(IFTAR DINNER) 주최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신앙 기반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에서 이슬람교 라마단 기간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주 최초로 이프타르 만찬을 주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프타르는 이슬람교에서 다음 주의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축제와 함께 라마단 금식을 끝내는 일몰 시간의 저녁 식사입니다. 이는 뉴욕주 주지사 행정부에서 개최하는 첫 이프타르 만찬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마단 성월은 이슬람교의 평화, 겸손, 자선, 신앙 가치를 포용하는 시기이며, 뉴욕주 최초로 이프타르 만찬을 기념하는 것은 모든 뉴욕 주민이 하나로 화합하고 이 혐오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로 단결함을 미국 전역에 보여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편협과 증오가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이 시기에 통합과 관용의 가치를 기억하고 모든 형태의 이슬람 혐오, 인종우월주의 및 차별을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타협할 수 없으며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뉴욕주에 혐오를 위한 장소는 없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이프타르 만찬은 이슬람교 가족과 함께하고 라마단 성월을 존중함으로써 뉴욕주 역사에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가치를 나누며 포용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제 그 어떤 때보다도 혐오 및 우리를 분열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모든 뉴욕 주민의 권리와 보호를 지원해야 합니다."

신앙 기반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의 상임이사이자 부커미셔너인 **Karim Cam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행정부에 의해 주최되는 최초의 이프타르 만찬을 기념하게 됨으로써 오늘 밤은 뉴욕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종료하기 위해 모이는 이때, 우리의 가치와 전통을 되돌아보며 혐오가 미국을 파괴하는 시기에 이 기념행사를 통해 관용과 수용을 한 번에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시다. 저는 신앙 기반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에서 이 만찬을 개최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뉴욕 주민께서 이슬람 전통에 대해 배우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대략 345만 명의 이슬람교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22.3%는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동체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가 됩니다. 뉴욕주는 그 어떤 주보다 많은 회교 사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뉴욕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재임 기간동안 동등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국가적 선도자로서 활동해왔으며 편견과 차별에 맞선 수많은 계획을 시행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주지사는 뉴욕 최초로 주 경찰(State Police) 내에 편견 범죄 훈련을 받은 120인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혐오 범죄 대책팀(Hate Crimes Task Force)을 구성, 잠재적 혐오 범죄를 조사하는 사법 집행 기관을 조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모든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관용하도록 돕고, 열린 마음과 포용성을 증진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범종교 자문위원회(Interfaith Advisory Council)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오늘 밤 이프타르 만찬의 사제를 담당할 주도 지구(Capital District) 이슬람교 센터의 Imam Abdul-Rahman Yaki를 포함, 주 전역의 이슬람교 공동체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2016년 혐오 범죄의 수가 19%를 차지했지만, 편견과 차별에 맞선 주지사의 지속적인 조치에 따라 2017년 7%, 2018년 6%로 감소했습니다. 뉴욕의 이슬람 혐오 사건 또한 2016년 41건에서 2017년 26건, 2018년 18건으로 55%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스의 사법 집행일이었던 1월 23일을 포함, 올해에만 뉴욕주 내에서 여러 이슬람 혐오 사건이 발생했으며, 뉴욕에서는 델라웨어 카운티에 위치한 이슬람버그(Islamberg) 이슬람교 공동체에 대한 잠재적인 테러 공격을 방지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